

5·18, 아시아 민주·인권운동 이끈다 ① '광주 정신' 전도사들

2007 광주아시아인권학교 107명 민주화 현장속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29주년을 맞았다. 5월 항쟁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상징하는 역사의 한 축으로 우뚝 서 있다. 송고한 '민주화'의 꽃이 피어날 지 30년이 다 된 지금, 5월 항쟁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인권'을 상징하는 '꽃씨'가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운동 현장에서는 '5월 정신'으로 무장한 인권운동가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5·18기념재단의 '광주 아시아인권학교'를 거쳐간 젊은이들이 그 주역이다. 광주일보는 이들 '광주 정신 전도사'의 현지 활동과 해당 국민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 상황 등을 현장 취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5월 광주의 정신은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5월 광주의 정신은 아시아 개도국 민주화운동의 송고한 '꽃씨'로 승화했다"

'5월 정신'의 '씨앗'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퍼져나간 것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5월 단체들은 '광주인권상' 제정을 통해 5월 항쟁의 모태인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다.

'광주인권상'은 올해까지 10회째를 맞는 동안 '광주 항쟁'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광주인권상' 제정 4년 뒤 광주는 또 한번 지구촌의 민주화를 촉발시키는 귀중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5·18 기념재단이 2004년 '제1회 광주 아시아인권학교'를 연 것이다.

매년 8~9월 열리는 '광주 아시아인권학교'는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수료자를 배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가운데 매년 5·18 항쟁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아시아 각국의 인권발전 과정, 시민운동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이 이뤄진다.

'광주 아시아인권학교'에는 지난 해까지 네팔,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20개국 107명의 청년이 다녀갔다. 국가별로는 ▲필리핀(12명) ▲인도네시아(11명) ▲인도(8명) ▲네팔(7명) ▲스리랑카(7명) ▲아프가니스탄(5명) ▲방글라데시(5명) 등이다.

미국(2명)이나 스웨덴(1명) 등 일부 참가자를 제외하고 수료자 대부분이 정치·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인권 환경이 열악한 나라 출신이다.

이들은 광주에서 3주에 걸친 교육과정을 통해 5월 항쟁의 전개 과정과 의미 등을 폭넓게 체험한 뒤 자국으로 돌아가 '5월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수료자 모두가 인권 운동가나 인권에 대해 관심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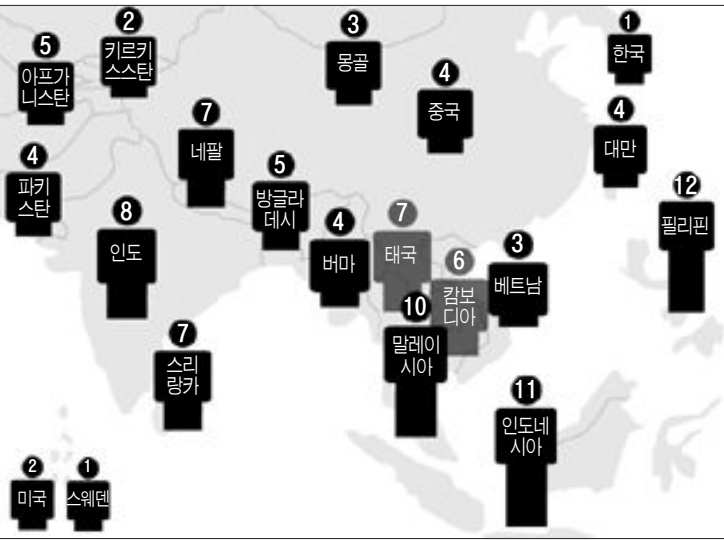
수료자들 평화·인권 '전도사'되어 각국 사회단체·정치권 등서 활약

른 재북들로, 해당 국가 민주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의 아부 라이한 알 비루니(Abu Rayhan Al-Beeroonee)씨는 2005년 인권학교 수료 후 고국에서 '가난자를 위한 쉼터(Shelter for the poor)' 대표로 활약하며 도시 빈민의 인권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2006년 인권학교 수료자인 바드랄 하삼 사하린(Badrul Hisham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국가별 수료자 현황 (●인은 인원수)



동권, 정치권, 교육계, 언론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제인턴교류사업'도 활발하다. 5·18기념재단은 국제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10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해 5·18과 한국의 민주주의의 경험과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와 미국 등 10여개 나라에 70여명의 대학생 인턴을 파견해 국제적인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5월 항쟁 30주년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들의 활약 덕분에 '5월 정신'은 민주화와 인권에 목마른 아시아 시민들에게 '감로수'가 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지난 2007년 광주아시아인권학교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가들.



영창 체험 5·18 역사기행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난 9일 5·18자유공원 내 옛 상무대에서 영창 체험을 하고 있다. /4명주기자 mjna@

'5·18 역사기행' 참가 어린이들

"오월 영령들 고맙습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토마로 지역아동센터 등 공무방 3곳에서 온 초등학생 40여명이 옛 전남도청을 찾았다. 1980년 5월 항쟁의 현장을 둘러보는 '5·18 역사기행'에 참가한 학생들이다. 상무대 영창과 법정, 국립 5·18 민주묘지 등이 이들이 둘러볼 주요 체험코스다.

나이 10살 안팎인 아이들은 영창 무더위에 불구하고 머리에 하얀 피를 두른 학생들이 옛 도청에서 집안 군 역할을 맡은 자원봉사자에게 공분을 맞는 시민군 체험을 하고, 부상을 당한 동지를 들것에 실어 운반하기도 하는 등 당시의 순간들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한 학생은 "어떻게 군인이 되고한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공물을 휘두르죠?"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주먹밥 체험' 시간이 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여들어 행사 관계자의 말에 집중했다. "5월 민주항쟁 당시 광주에는 강도와 절도 사

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특히 옛 도청에는 인근 주민들이 도청을 사수하는 시민들에게 주먹밥과 물 등 생필품을 가져다주기도 했죠" 역사기행 책임자인 정석 팀장의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시민군을 구경하고, 재관했던 5·18자유공원내 옛 상무대 영창과 법정을 찾은 학생들은 법정 방정석에 앉아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방정석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목념을 올릴 때 몇몇 학생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히기도 했다. 추모관에 전시된 피묻은 태극기 앞에서 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을 정도로 숙연한 표정이었다.

그들을 찾아 이곳 저곳 돌아다녔던 말뚝꾸러기 학생들도 추모관에 남긴 쪽지의 내용을 한결 같았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세상에 살게 해준 희생자 분들 고맙습니다"라고. /김형호기자 khh@

나원침 (7799) 김종두



나주 학교 건물 인부 추락사

9일 오후 2시20분께 나주시 한 중학교 3층 건물에서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던 이모(56)씨가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줄에 매달려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줄이 풀려 추락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법원 '가솔람 권거하리' 명령

○법원이 아내와 어린 딸을 버려두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보며 살라는 보기 드문 명령을 내려 눈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속 소환석 부장판사는 10일 주부 A(30) 씨가 남편 B(32) 씨를 상대로 낸 부부동거 등 신청 사건에서 B 씨에게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고 심판. ○지난 2007년 결혼한 B씨는 이듬해 생후 5개월밖에 안된 딸과 부인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갔으며, 이에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집으로 돌아오고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달라는 취지의 심판 신청을 법원에 제기. ○재판부는 "별거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B 씨는 부인과 동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으며,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부부동거 명령이 내려진 첫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연합뉴스

주택 화재·산불...해남서 1명 숨져

휴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로 1명이 숨지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이 잇따랐다.

10일 새벽 0시경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박모(54)씨의 집에서 불이 나 대나무와 박씨의 동거녀 이모(30)씨의 아들(7)이 숨지고, 박씨는 온몸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농사 문제(박씨의) 다툼 후 혼자 마당에 있었는데 집 안에서 '뽕' 소리가 나더니 불길아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박씨가 불을 지른 것

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이날 낮 12시10분께 영광읍 영광읍 영광군청 뒷산에서 불이 나 대나무와 야생낙죽 등 임야 0.05ha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군청 직원 등 100여명과 산림청 헬기 1대가 현장에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앞서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관산구 북동동 동동교회 인근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 수천 그루의 대나무 등을 태운 뒤 3시간여만에 진화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6월 5일 OPEN.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내장객 선착순 1,000분께 6월 12일(금) 기아타이거즈 VS 한화이글스 광주총합경기장 입장권을 드립니다. 돌잔치, 세미나, 피로연 각종 모임 예약 접수중 (470석 완비).